

담양·순창, 민원해결 맞손...차수벽 철거로 물 부족 해소



전남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이 광역경계를 넘어선 협업을 통해 오랜 고민이던 물 부족 문제를

순창 구림면 도수터널 차수벽 철거로 담양호 유입수량 확보 전남·북 광역지자체 넘은 상생협력으로 민원 해결 모범사례

를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순창군, 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담양호 간접 유역인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의 차수벽을 철거하기로 했다. 13년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담양군 금성면에 위치한 담양댐은 영산강 유역종합사업으로 1976년 9월 준공됐으며 총 저수량은 7007만, 유역면적은 6560ha(담양 4720ha, 순창 1840ha)이다. 1976년 축조 당시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에서 24%의 물이 간접 유입되도록 설계됐으나, 2010년 3월 가뭄으로 순창 지역 주민들이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현재까지 유입 수량이 제한되고 있다.

이후 순창군의 간접유역 물이 차단되면서 담양호 평년 저수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졌고, 올 봄 갈수기에는 최저 28%까지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지역 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담양호는 담양 6개 면 이외 장성군과 광주시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원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용수 급수 당시 담양댐 저수율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인 32.1%로, 물 부족으로 인한 제한 급수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다. '농업용수 부족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담양군은 이병노 군수가 직접 최영일 순창군수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10여 차례 면담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이후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6일 순창군 구림면 이장회의 때 주민설명회를 통해 담양군의 오랜 숙원인 차수벽 철거가 최종 결정됐다. 담양군과 순창군,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순창지사, 구림면 주민대표는 이에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수벽 철거와 더불어 한해 중심지역인 순창군 금과면에 담양호 하천수 유입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수벽이 철거되면 평년 저수율이 20% 상승되는 효과와 함께 열흘만 여유 수량을 취수 하더라도 800만(담양호 저수율의 10%)을 확보할 수 있어 매년 물 부족으로 인한 농민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군수는 "전남·북 광역단체를 넘어 상호 협력을 통한 민원 해결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며 "상생을 위한 큰 결정을 내려주신 순창군 민과 군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명품 국악공연' 연다

9~11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필암서원 앞마당... 체험 프로그램도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명품 국악공연을 펼친다. 군은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문화재청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선정으로, 필암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국악공연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호남의 선비'를 주제로 김인후 선생을 만나 '다'를 주제로 관객과 만난다. 9월에서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원 앞 잔디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선, 화려한 출연진이 이목을 끈다. 오는 9월 16일에는 팬텀싱어3 준우승 '라비덴스' 멤버인 소리꾼 고영열, 10월 21일에는 전통음악 합주단 '선풍'이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회차인 11월 18일에는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공감' 공연이 대미를 장식한다. 체험 프로그램도 흥미롭다. 수묵화 그리기, 스티디 플래너 만들기 등의 체험이 공연을 하

루 앞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된다. 인종 임금이 허서 선생에게 하사한 '세 가지 선물'을 소재로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필암서원에서 펼쳐지는 명품 국악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참여 문의는 행사 주관사인 ㈜예술숲(1800-4746)으로 하면 된다.

장성=김수권기자

곡성군, 읍·면 대여농기계 일제 순회 점검 실시

11개 읍·면 대여사업소 보유 중인 관리기·동력분무기·예취기 등 총 56종 500여 대



곡성군이 적기 영농을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곡성을 대여사업소를 시작으로 대여농기계의 순회 수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11개 읍·면 대여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관리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총 56종의 500여 대의 농기계에 대한 정비 및 점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기계의 사전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영농의 적기를 잡고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 대여사업장에서 운용되던 대여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수리비 과다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기종을 파악

할 계획이다. 방치 농기계는 9월 중 일괄 회수해 2024년도에 관내 농업인을 우선으로 하여 불용농기계 매각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의 정확한 운용과 관리방법을 교육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여 농기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대여한 농기계의 고장이나 파손 상태를 반납 시점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용 후에는 농기계를 세척 후 반납함으로써 다음 사용자가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진행

화순군은 지난 8월 31일 화순 하니움문 화스포츠클터에서 2023 전국(장애인)체전 봉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것으로, 체전 개요, 장애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이 진행됐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며, 이들은 화순에서 진행되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돕게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 개강식 개최

구례군은 9월 1일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26명과 함께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 개강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 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구례군은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1기 교육을 수료한 마을해설사를 강연자로 참여시켰다.

마을해설사는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안내자를 말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해설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실용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남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